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음 10월 24일) 제169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한일군사협정·국정교과서 일방적 추진... '폭주' 하는 박근혜 정부

# 도민 반대여론 '정점'

'최순실 게이트'로 전 국민이 분노한 가운데, 한일군사협정과 국정교과서 추진 등 일방적인 국정폭주에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는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북비상시국회의가 체결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과거사 뿐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버리지 않는 일본 자위대를 통해, 서해, 남해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탄핵 대상"이라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이전에 체결된 NATO 정보보호협정은 FKO 파병에 대한 건, UAE와의 정보보호협

정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공개되지 않으며 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이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의견을 반영한 최종본은 내년 1월 공개되며 1~2월 인쇄와 보급을 거쳐 3월 신학기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국정교과서 강행에 전북교육청은 물론 보수 교육계 내에서도 국정교과서 공개를 철회하거나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역사 교과서 문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역사 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 건국절 제정 등 교육현장 여론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제작될 경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일부 시도교육감 역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성명을 내고 정부에 국정교과서 검토본 공개 강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교육청은 국정화 시행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역사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있고 나쁘게 말하면 '최순실 교과서'라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국사의 경우 사회전공의 교사가 역사를 가르치는 학교가 상당한데 교사용지도서도 준비되지 않은 국정교과서가 나올 경우 혼란은 불보듯 하다"면서 "28일 국정교과서가 발표될 경우 보조교재 집필진이 검토한 오류와 문제점을 1주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정은 원전 건설과 관련된 것이지만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명백한 군사 영토적 문제"라며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것에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는 28일엔 국정교과서 검토본도 공개될 예정이어서 도내 교육계가 발끈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웹사이트 공개와 함께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브리핑 형식으로 현장검토본에 대한 설명을 할 계획이다.

편찬기준과 집필진 47명 명단은 이때 함께 공개하고 편찬심의위원 16명은 최종본이 나온 다음에 공개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은 약 한 달간 이뤄지면 의견을 내려면 인증서와 휴대

### 전북비상시국회의, 한일군사협정 체결 비난

"미국과 일본에게만 이익... 우리에게 백해무익  
대국적 협약 체결에 앞장선 한민구 탄핵하라"

### 28일 국정교과서 검토본 공개... 도내 교육계 '발끈'

'제출된 의견 비공개'... 보수 교육계까지 반발  
'친일·독재 미화... 나쁘게 말하면 '최순실 교과서'  
도교육청 포함 일부 시도교육감들도 반대 목소리

전북비상시국회의는 이 자리에서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협정 체결은 일본의 집단 지위권 행사와 남한에 대한 공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며 "협정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이익이 될지언정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우리는 국회가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매국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을 지지하고 이에 앞장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반드시 탄핵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한일군사협정 폐기법안 제출이라는 맞불을 지켰다.



국민의당 소속 7명의 전북 국회의원(비례대표)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탄소산업 장비 예산 지역차별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 탄소산업 장비 예산도 '지역차별'... 도내 국민의당 의원들 '분노'

# "재주는 전북이... 돈은 경북이..."

###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예타조사 과정서

전북, 3종 22억·경북, 9종 115억7000만원 반영  
정부, 탄소클러스터 운영 총괄센터 경북 건립 우선"

도내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전북 탄소산업 관련 장비 예산의 차별적인 시각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소속 7명의 전북 국회의원(비례대표)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탄소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전북은 10년 전부터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탄소법 제정으로 명실상부한 탄소산업의 메카로 자리를 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재주는 전북이 부리

고 돈은 경북이 챙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수십 년간의 차별도 모자라 이제 10년 넘게 노력한 그 정당한 대가조차도 뺏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탄소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 전북은 13종 154억8,000만원을, 경북은 11종 144억2,000만원의 탄소산업 관련 장비 예산을 요청했지만,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예타조사 과정에서 전북은 3종 22억원, 경북은 9종 115억7,000만원 반영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 관련 예산은 80%가 삭감되고, 경북 예산은 20%만 조정되는 것으로 예산 반영 차이만 5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탄소클러스터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를 경북에 건립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했다.

이들은 "전북이 사업비 감액 등을 감수하고도 경북과 공동협력사업에 동의한 것은 양 지역 예산과 인프라 구축 등을 균형있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며 "경북에 치중된 차별적인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송연석 기재부 차관 등을 비롯한 대구·경북 출신 모피이들의 예산 농단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 내달 13일 최순실·안중범·정호성 첫 재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2월13일 열린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월13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

에서 열린다. 법원은 전날 최씨 등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한 바 있다.

최씨 등의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하로 단독재판부에 배당될 사건이다. 하지만 사건의 중요성 등에 비해 법원은 형사합의부로 넘기는 재판

합의를 결정했고, 혐의에 따라 일반 사건으로 분류해 무작위 전산 배정으로 형사합의 29부에 배당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사안의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우송의 신동현·윤성진 변호사는 지난 16일 최씨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다가 이를 만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뉴스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